



◇격려말씀◇

말없이 잘도 자라는 우리 학교

설립자 이 기 혁

우리 인성은 말없이 잘도 자란다. 나는 지난 감사절에 설교를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제 일회관에 가서 보니 중학생들이 넓은 상, 하층에 꼭 찼고 또 제일교회에 가니 고등학생들이 또 꼭 찼다. 이 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 기쁨이 넘쳤는데 씩씩하고 유쾌한 기상으로 감사절을 성대히 지키는 것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학교가 지난 五월에 십육주년 기념식을 거행 했지마는 실상은 십팔년 전부터 시작하여 수년간은 인가도 없고 학생도 몇명 안되고 너무도 곤란하게 지냈으므로 첫번 졸업식에는 졸업생들이 울기 시작하여 재학생, 선생직원, 학부모들이 전부가 울음 바다를 이루었다.

피난생활 복귀 후 공부 못할 형편에서 졸업장을 받으니 감격도 이만 저만이 아니지마는 학교 형편도 너무 비장하기 짝이 없었다. 나도 그 날은 종일 울었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 학교가 이만큼 비상한 발전과 놀랄만한 존재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요, 둘째 사회와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셋째 교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단결과 열성과 희생적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도 잘 기르고 상급 학교 입학률도 매우 우수한 까닭도 있고 모든 학생들의 착한 행실과 예의 친절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보나 기뻐하며 신앙도 잘 키워지는 까닭이다. 그리고 나는 전국 각처로 다니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는 인성학교 졸업생」이라고 감사의 뜻을 기뻐하며 표시하는 것을 간간히 경험하고 참 기쁩니다. 물론 나는 모르지만 그는 나를 모르는 체 할 수 없어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학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신이 키워지는 것은 학교의 큰 영광이요, 그 자신들의 희망적이에요. 위대해 질 것이다. 나는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사의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법이다. 전국에서 우리 학교만이 그 인사법을 쓴다. 남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참 훌륭히 생각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쳐 놓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살인, 강도, 강패들의 싸움이 많아 살기에 염증이 나는 세상을 만든 것은 우리 겨레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한 까닭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회나 가정은 얼마나 살기 좋고 살 맛이 있는 즐거운 곳입니까?

우리 졸업생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늘 감사한 기분을 보이고 살아서 이 나라를 즐거운 나라로 이룩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천이요, 만이요, 이땅 각처에 분포되어 거룩한 일군이 되소서! 금년도 우리 학교에 입학이 되지 못하여서 섭섭하고 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금년 졸업생은 우리 학교에서 삼년, 또는 육년의 위대한 교양과 인격을 키워가지고 나가게 되었으니 참 행복된 여러분입니다.

금년 졸업생 여러분은 모교를 평생토록 잊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학교나 우리 교장님, 우리 선생님들을 늘 자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영광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참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 각방면으로 학교를 적극 후원하세요. 동생들, 조카들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교의 품으로 들어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이 행복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